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의 刻手 研究

A Study on the Engravers of two books,
Myobeopyeonhwagyeonghyeonui, Beophwamungugi

김 상 호(Kim, Sang-Ho)*

◁ 목 차 ▷

- | | |
|---------------|------------|
| 1. 서 언 | 5. 각자술의 비교 |
| 2. 각수명의 기입 | 6. 결 언 |
| 3. 원판과 보판의 구분 | <참고문헌> |
| 4. 각판의 분담 | |

< 초 록 >

본 연구는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전적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두 전본에 기입된 각수명을 바탕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전본의 여백에 인명이 기입된 것은 2/3정도인데, 무엇보다 중복된 인명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각기법으로 보아 그것이 각수명임이 분명하다. 둘째, 각수는 각자 목판 1매의 관각을 맡았으며, 그 결과 홀수 장과 그 다음의 짝수 장에 같은 이름이 기입된다. 인명의 식별이 어렵거나 기입이 생략된 장의 각수를 짐작하게 한다. 셋째, 보판을 개판할 당시에는 난외에 각수명의 기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완결이 심한 원판의 예로 보아 보판으로 대체된 원판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당시 사정이 그런 원판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두 전본의 원판과 보판에서는 각수명의 기입 외에 서체나 행간, 광곽의 모양 등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이는 그것의 원판, 그리고 보판 간에 간행한 주체나 시기, 장소에서 관련성, 상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두 전본에 나타나는 각수는 51명이다. 이러한 상당수 인원의 각수 동원은 단지 그것이 해당 불서의 간행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대대적인 불전 간행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에서 두 전본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곱째, 각자술은 각수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서사자의 글씨를 충실히 재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각수의 개성이 서체 상에 드러났다.

요어 : 각수,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5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3일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try to observe the feature and meaning of two books, *Myobeopyeonhwagyeonghyeonui*, *Beophwamungugi* with name of engravers. Research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about 2/3 for the engravers' name entered in margin of leaves, 2) the others are printed by supplement plates, 3) this fact means that original plates and economic situation were not good, 4) between the original plates and supplemental plates, there was a common feature like engravers' name, font, space of lines, outside line, etc., 5) and that means two books were published by similar body in almost same time, same place, 6) so many engravers were participated to large publishing project, not to printing only two books, 7) there was a difference to each ability of engravers carves the letters on the woodblock, 8) each engraver had his own style and ideal font.

Keywords : engraver, *Myobeopyeonhwagyeonghyeonui*, *Beophwamungugi*

1. 서 언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전적 가운데 각수명이 보이는 것은 「妙法蓮華經玄義」 권3, 권4와 「法華文句記」 권5, 권6, 권7, 권8, 그리고 「圓覺經大疏釋義抄」 권13 등으로 모두 3종 7권이다. 각수명은 간기가 없는 문헌의 간행시기를 밝히는데 좋은 단서가 된다.

전본 「圓覺經大疏釋義抄」는 권말에 홍왕사 교장도감에서 조조하고, 간경도감에서 중수했다는 간행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전본의 난외에 기입된 네 인명 가운데 식별이 되는 것은 단지 둘에 불과하며,¹⁾ 그 인명은 다른 두 전본과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각수명만으로는 그것들과 연계하여 논의하기는 불가능하다.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사이에는 다수의 각수명이 중복되어 나타나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두 전본이 같은 시대에 판각된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수명을 통한 두 전본의 간년 추정에는 보다 확실한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法華文句記」의 각수명 중에 기존의 각수명목록과 일치하는 것이 있지만,²⁾ 각수명이 기입된 원판의 완결정도, 보관의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동명이인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의 교장판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먼저 형태서지학적 관점에서 전본의 간행시기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수의 활동시기를 가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수명을 통한 전본의 간행시기 추정 및 각수의 활동시기 고증은 광범위한 문헌의 조사가 끝난 뒤로 미루고, 다만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두 전본에 기입된 각수명을 바탕으로 그 기입의 내용과 각수의 중복성, 그것이 지니는 의미, 판의 식별과 각수인원, 각판의 분담, 그리고 각수 간에 보이는 각자술의 우열, 그 성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제49장 후면에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雕造,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의 간기가 있는 「圓覺經大疏釋義抄」 권13의 제1장부터 제49장 난외에 기재된 각수명은 35 □□□ / 36 行中 / 38 □□ / 41 緣飾이다.

2) 萬心(1686 정광사), 法行(1638 영정사, 1681/1684 운흥사)

2. 각수명의 기입

전본 「妙法蓮華經玄義」 권3의 30장, 권4의 34장, 「法華文句記」 권5의 39장, 권6의 35장, 권7의 39장, 권8의 38장, 도합 6권 215장에서 각수명이 기입된 것은 2/3정도인 142장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후쇄 또는 보존의 문제, 즉 완결이나 파손으로 각수명의 확인이 어려운 것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난외 여백이나 판심에 기입된 인명이 각수가 아닌 공덕주, 시주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전본은 기입의 형식, 순서, 중복 등으로 보아 각수임이 분명하다. 각 권에 기입된 이름을 장차의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妙法蓮華經玄義」 권3

1, 2 崔堯 / 5, 6 正然 / 7, 8 戒宗 / 15, 16 長成 / 19, 20 高悅 / 25, 26 康柱 / 29, 30 金鉉

「妙法蓮華經玄義」 권4

(1), 2 高戒林 / 3, 4 可全 / 7, 8 志大 / 9, 10 仁(心) / 11, 12 六俱 / 13, 14 尹宣補 / 17, 18 高悅 / 19, 20 法均 / 21, 22 (僧初手)守心 / 23, 24 李藏 / 25, 26 正然 / 27, 28 松永 / 29, 30 康柱 / 33, 34 高仁立

「法華文句記」 권5

1, 2 宗拈 / 5 若丁 / 11, 12 良右 / 16 戒宗 / 19, 20 法琪 / 22 金景 / 25, 26 文李夜 / 27, 28 守英 / 29, 30 崔堯 / 31 善心 / 33, 34 松令 / 36 金英 / 37, 38 法行 / 39 梁智

「法華文句記」 권6

1 高悅 / 3, 4 行元 / 7, 8 德成 / 9, 10 用玄 / 17, 18 守堅 / 19, 20 高仁立 / 21, 22 宗拈 / 23, 24 松永 / 27, 28 万玄 / 29, 30 石全 / 31 高悅 / 33, 34 良右

/ 35 梁智

「法華文句記」 권7

1, 2 興眞 / 5, 6 行元 / 8 金守英 / 11, 12 李藏 / 13, 14 定心 / 15, 16 方悅 / 17, 18 松壽 / 19, 20 法行 / 21, 22 用玄 / 23, 24 丁云 / (25), 26 正然 / 29, 30 高仁立 / 31, 32 梁智 / 33, 34 玄世 / 35, 36 興眞 / 39 康柱(康柱)

「法華文句記」 권8

1, 2 法琪 / 3, 4 宗朴 / 9, 10 眞悟 / 11, 12 法藏 / 13 金日尙 / 16 法琪 / 20 宗朴 / 21 長成 / 23, 24 梁世 / 25, 26 永堅 / 27 高英輔 / 31, 32 萬元 / 33 長成 / 34 李洪 / 35, 36 正然 / 37, 38 玄(世)

위와 같이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의 각수명은 일반적으로 홀수 장과 그 다음의 짝수 장에 같이 기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수 개개인이 목판 1매의 판각을 맡은 결과로, 인명의 식별이 어렵거나 기입이 생략된 몇 개의 장의 각수가 누구인지 그 앞뒤 장을 살펴서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말하자면 「法華文句記」 권6의 제2장 각수는 高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때에도 「法華文句記」 권8의 제33장, 제34장과 같이 목판 한 매를 두 명의 각수가 나누어 판각한 예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法華文句記」 권8의 제37장, 제38장은 두 번째 글자의 판독이 어려운데, 「法華文句記」 권7을 참고하면 '世'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본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에서 각수명이 기입되지 않은 73개의 장은 그 원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각수가 1매의 목판을 판각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한 쪽에만 기입한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나중에 보판을 만들 때 난외에 각수명을 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들 잔본에서 각수명의 기입이 누락된 대부분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3. 원판과 보판의 구분

전본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는 각 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판과 보판의 장차를 구분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妙法蓮華經玄義」 권3

원판 : 1,2/(5),6/7,8/15,16/19,20/25,26/29,30 (7매 14장)

보판 : 3,4/9,10/11,12/13,14/17,18/21,22/23,24/27,28 (8매 16장)

「妙法蓮華經玄義」 권4

원판 : 1,2/3,4/7,8/9,10/11,12/13,14/17,18/19,20/21,22/23,24/25,26/27,28/29,30/
33,34 (14매 28장)

보판 : 5,6/15,16/31,32 (3매 6장)

「法華文句記」 권5

원판 : 1,2/5,6/11,12/15,16/19,20/21,22/25,26/27,28/29,30/31,32/33,34/35,36/
37,38/39 (14매 27장)

보판 : 3,4/7,8/9,10/13,14/17,18/23,24 (6매 12장)

「法華文句記」 권6

원판 : 1,2/3,4/7,8/9,10/17,18/19,20/21,22/23,24/27,28/29,30/31,32/33,34/35
(13매 25장)

보판 : 5,6/11,12/13,14/15,16/25,26 (5매 10장)

「法華文句記」 권7

원판 : 1,2/5,6/7,8/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9,30/31,32/
33,34/35,36/39 (16매 31장)

보판 : 3,4/9,10/27,28/37,38 (4매 8장)

「法華文句記」 권8

원판 : 1,2/3,4/9,10/11,12/13,14/15,16/20/21,22/23,24/25,26/27,28/29,30/31,32/
33,34/35,36/37,38 (16매 31장)

보판 : 5,6/7,8/17,18/19 (4매 7장)

「妙法蓮華經玄義」의 경우에 원판과 보판은 각각 42장과 22장이다. 보판이 전체의 1/3을 약간 상회한다. 「法華文句記」는 각각 114장과 37장으로 보판 비율이 「妙法蓮華經玄義」에 비해 조금 낮은 1/4 수준이다. 원판의 보존 상태가 「妙法蓮華經玄義」보다 조금 나았기 때문인 듯하다.

보판은 간단히 책을 찍어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전혀 새로운 판을 만들기 보다는 분실되거나 완결이 심한 일부의 판만을 보충하는 통상적인 인쇄 방식이다. 완결이 심해 본문을 읽기가 쉽지 않은 「法華文句記」 권7 제20장(부록 1의 3)의 예로 보아 당시 보판으로 대체된 원판은 더 열악한 상태로 인출 시 본문의 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는 전본을 인출할 때 이미 원판은 개판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보존상태도 불량해 완결된 부분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판을 대대적으로 보충하여 새기기는 하였으나, 부득이 하게 원판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말하자면 두 전본은 대형 간행사업의 하나로 인출되었고, 당시 사정은 경제적으로나 제작일정 상으로나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굳이 완결이 심한 판이 소수에 불과했다면 다수의 보판을 판각하는 상황에서 몇 개의 판을 더 추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독서의 수요에 의한 이행이었다면 더 더욱 새로운 판으로 보충되었어야 했다. 단지 일정 규모의 문헌을 인출하는데 의미를 둔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法華文句記」 권8의 제19장과 제20장은 원래 한 판의 앞뒤 면에 새겨지는

것인데, 제19장은 보판이고, 제20장은 원판이다. 보판의 제작을 억제하느라 원판의 완결이 심해 앞면만을 보충해 새긴 예에 해당한다. 원판 뒷면의 본문은 인출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보판을 새길 때 마땅한 전본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뒤집어 새기면 되겠지만, 그럴만한 전본이 없으면 별도로 보판용 정서본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서사자의 능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판과 보판의 글씨는 양자간의 시간 간격만큼이나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妙法蓮華經玄義」 보판(부록 1의 1)과 「法華文句記」 보판(부록 1의 2)에서 드러나는 형태상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체에 있어서 보판의 글씨는 원판에 비해 획이 굵고 고르며, 서사자의 필체가 잘 드러나 있다. 원판이 방필이라면 보판은 원필이다.

둘째, 행간의 크기가 원판은 6행마다 넓게 판각되었으나, 보판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원판은 개판 당시 절첩장으로 제작하였고, 보판은 인출 당시 선장으로 제작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妙法蓮華經玄義」보다 「法華文句記」의 행간이 더 일정하다.

셋째, 광곽의 모양은 원판에서 그 선의 굵기가 가늘고 비뚤어진 것이 많은 반면, 보판은 전반적으로 선이 굵고 곧다.

넷째, 원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난외에 각수명이 기입된 반면, 보판에는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통된 속성은 그것의 원판, 그리고 보판 간에 간행한 주체나 시기, 장소에서 관련성, 상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각판의 분담

권질이 호한하지 않은 경우에 동원된 각수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다.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잔본 6권에 보이는 각수 연인원은 80명에

달한다. 「妙法蓮華經玄義」 권3, 4를 각자한 각수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18 명이고, 「法華文句記」 권5-8을 각자한 각수는 41명이다. 이들 두 잔본 6권에서 중복 기입되어 있는 각수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복 각수명

각수명	권 3	권 4	권 5	권 6	권 7	권 8
正然	5,6	25,26			26	35,36
戒宗	7,8		16			
長成	15,16					21/33
高悅	19,20	17,18		1/31		
康柱	25,26	29,30			39	
李藏		23,24			11,12	
松永		27,28		23,24		
高仁立		33,34		19,20		
宗朴			1,2	21,22		3,4/20
良右			11,12	33,34		
法琪			19,20			1,2/16
(金)守英			27,28		8	
法行			37,38		19,20	
梁智			39	35	31,32	
行元				3,4	5,6	
用玄				9,10	21,22	
興眞					1,2/35,36	
玄世					33,34	37,38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에서 그 이름이 보이는 각수는 8명이다. 그 예가 가장 많은 각수는 4권에 걸쳐 그 이름이 보이는 正然이고, 다음은 3권에서 보이는 高悅과 康柱이다. 원판의 초인본 완질이 전해진다면 더 많은 각수들이 더 많은 권질에서 중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문헌에서 각수의 중복성은 해당 문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판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같은 권차의 서로 앞뒤에 있지 않은 다른 장에서 각수명이 중복 기입된 예는

「法華文句記」에서만 보인다. 이는 「妙法蓮華經玄義」보다 「法華文句記」의 보판 비율이 낮은 것도 한 원인이 되고, 「法華文句記」의 판수가 권당 19매 내외로 16매 내외인 「妙法蓮華經玄義」보다 그 수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전본에 한정해서 같은 권차에서 각수의 중복성은 큰 의미가 없다. 같은 권차에서의 각수 중복성은 동원된 각수의 인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두 전본에 동원된 각수는 이미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각수 인원의 동원은 단지 해당 불서의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대적인 불전 간행사업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두 전본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각자술의 비교

각자술은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솜씨, 기교, 기술을 말한다. 각자술은 각수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인출된 지 오랜 인본, 특히 후쇄본으로 각수 개개인의 각자 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류 각수이더라도 판각용 정서본, 번각용 저본의 글씨가 좋지 못하면 그 솜씨를 한껏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그러한 문제들을 아울러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그 원판과 보판, 몇몇 각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두 전본에 기입된 여러 각수 가운데 전본 간에 중복성이 높은 正然, 高悅, 康柱, 그리고 초보 각수로 판단되는 守心이 판각한 부분의 일부를 그림으로 첨부하면 부록 1, 2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妙法蓮華經玄義」 원판(부록 2의 1,2,3,4)과 「法華文句記」 원판(부록 2의 5,6,7)의 각자술은 글자가 더 크고 자간의 여유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각의 정교함, 자획의 굵기, 글자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만 같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후자에서 서사자의 필획이 살아있는 반면 전자는 많이 가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 명의 각수 간에 공통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것이 각수 개개인의 각자술의 차이보다는 판각용 저본의 상태, 번각의 유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세 각수 간의 솜씨를 비교하자면, 正然과 高悅, 康柱의 각자술은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 正然이 판각한 본문의 글자들은 高悅과 康柱에 비해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이는 각자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숙련된 각수로서 그저 평이한 저본이나 서사자의 글씨에 충실하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균형 안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질박한 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康柱는 각자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뛰어난 각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본의 상태나 서사자의 글씨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양의 글자들을 만들어냈다. 가늘게 새겨내고 있는 선의 표현이 정확하고 예리하다. 일관성과 균형미를 유지하고 있다.

高悅은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저본의 글씨를 재현하는 데 충실했던 각수로 여겨진다.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이상적인 서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숙련된 각수로서 그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글씨가 되도록 각자한 것 같다. 이러한 세 사람의 개성은 두 전본 간에서 공통되게 드러난다.

「妙法蓮華經玄義」 권4 제21, 제22장은 숙련된 각수가 아닌 초보 각수가 판각한 것이다. 이는 난외에 ‘僧初手守心’이라고 각인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록 2의 4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자술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위의 숙련된 세 각수에 비해 칼의 움직임이 순조롭지 못해 자획을 자주 건드려서 획이 곧지 못하고 굴곡이 잦으며, 균형이 맞지 않는 글자들이 많다. 천천히 정성을 다해 각자하였겠지만 미숙한 나머지 저본의 글자를 충실히 재현해낼 수 없었던 듯하다. 초보 각수와 일류 각수의 각자술의 차이는 저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번각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보판을 서로 비교하면, 원판과 마찬가지로

로 후자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자획이 굵고 글자 사이에 맞물림이 많은데도 글자의 균형을 잃지 않고, 새김이 정확하다. 「法華文句記」의 보판을 간행할 때에 우수한 서사자와 각수가 동원된 듯하다. 다만 보판은 가급적 원판과 같은 체제로 제작해야 할 터인데, 원판과 보판 간에 글자의 크기나 서체 상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6. 결 언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전적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두 전본에 기입된 각수명을 바탕으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본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6권 215장에서 각수명이 기입된 것은 2/3정도인 142장이다. 난외 여백이나 판심에 기입된 인명이 각수가 아닌 공덕주, 시주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전본은 기입의 형식, 순서, 중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복된 인명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판각기법으로 보아 각수임이 분명하다.

둘째, 전본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의 각수명은 각수 개개인이 목판 1매의 판각을 맡은 결과로 홀수 장과 그 다음의 짝수 장에 같이 기입되어 나타나며, 이로 말미암아 인명의 식별이 어렵거나 기입이 생략된 장의 각수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전본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에서 각수명이 기입되지 않은 73개의 장 가운데 각수가 자신의 이름을 한 쪽에만 기입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보판이다. 당시 난외에 각수명의 기입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완결이 심한 「法華文句記」 권7 제20장의 예는 당시 보판으로 대체된 원판의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판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두 전본의 원판과 보판에서는 각수명의 기입 외에도 서체나 행간, 판

곽의 모양 등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이는 그것의 원판, 그리고 보판 간에 간행한 주체나 시기, 장소에서 관련성, 상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妙法蓮華經玄義」 권3, 4를 각자한 각수는 18명이고, 「法華文句記」 권5-8을 각자한 각수는 41명이며, 두 전본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각수는 8명이다. 正然과 高悅, 康柱가 대표적인 각수에 해당한다. 상당한 각수 인원의 동원은 단지 해당 불서의 간행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대대적인 불전 간행사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두 전본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곱째, 각자술은 각수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서사자의 글씨를 충실히 재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각수 간에 추구하는 서체의 차이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세 각수의 각자는 각자 개성이 있어서 正然은 전체적인 균형 안에서 작은 변화와 강조, 질박함과 힘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康柱는 비교적 가늘고 정확한 선의 표현을 통해 일관성과 균형미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高悅은 저본에 충실하여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글씨를 새겨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면 守心은 초보 각수로서 획을 곧게 새겨내지 못했으며, 그가 새겨낸 글자는 균형을 잃은 것이 많다.

참고로 「妙法蓮華經玄義」와 「法華文句記」 보판은 사천왕상의 다른 복장 전적 가운데 「圓覺經大疏釋義抄」 보판 및 「金剛鉉顯性錄」 원판과 판식 및 서체상 비슷하다. 각수명 역시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인출시기와 관련해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헌으로 판단된다. 복장 전적의 각수 문제에 한정해서 뿐만 아니라, 그 간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흥왕사에서 간경도감에 이르기까지 교장의 간행사업과 현전본에 대한 형태서지학적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접근이 어렵고, 그 세부적인 기술 또한 부족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하다. 학회 차원에서 연구 과제로 검토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1997.
- 강순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고.”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6). 27-61.
- 김상호. “조선조 사찰판 각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 김수천. “홍덕사본 직지의 서체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9집(2004. 12). 277-309.
- 노기춘. “순천 송광사 개판불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5집(2003. 6). 447-476.
- 박상국.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상).” 「계간서지학보」 창간호 (1990. 6). 93-117.
- 박상국.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하).” 「계간서지학보」 2호 (1990. 9). 133-156.
-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이종권. “조선조 국역불서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 임창순. “간본과 서체.” 「서지학」 창간호(1968). 3-6.

<부록 1> 보판과 완결판

(1 「妙法蓮華經玄義」 보판 / 2 「法華文句記」 보판 / 3 「法華文句記」 원판의 완결)

1	2	3
<p>地斷結齊羅漢或云七地此難 對皆不定中間可以意得今以 從七地八地觀常住破無明者 通亦復非別何者通教始終不</p>	<p>釋意者若但述二乘祇應從中草 如前所立意也又說不能盡之言寄 來耶此中先叙佛意佛意既偏驗領 貫諸道不遺下乘不及退進等者以</p>	<p>之言即實塔已顯也此三無之 所引若三語之時每云說經信得者 亦主定信益三月一受之第這三以</p>

<부록 2> 각수의 각자 본문

(1,5 正然 / 2,6 高悅 / 3,7 康柱 / 4 守心)

1	2	3	4	5	6	7
<p>漢但有二謂住果也復次超 那舍斷五上分結謂色無色</p>	<p>實法故如來座即天行云何 法空不動不退亦不分別上</p>	<p>是以空無相願調伏諸根爲 薩於中忍中三僧祇行六度</p>	<p>破和合爭訟得生此天次昔 供養衆僧掃塔淨信上田次</p>	<p>累至所以理雖無動化事成觀 移故知應有授者則土變衆務</p>	<p>攝戒取不計斷者固極果故色 通備三界今未用舊釋者但在欲</p>	<p>等迦葉及當知年故頌文後不更 普應見解以多瑜伽尚別同曇乳五</p>